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우리가 최일선 담당'

전북중기청, 시·군 공무원 대상 '스마트 제조혁신 설명회' 개최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안남우, 이하 전북중기청)은 전라북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호남연수원, 전북TP와 공동으로 28일 전주 팔복동에 소재한 '전주 스마트공장 배움터'에서 도내 14개 시·군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스마트 제조혁신 설명회'를 가졌다.

이번 설명회는 시·군에서 지역산업 진흥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에게 스마트공장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도입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자 '스마트공장 배움터' 견학 프로그램을 겸해 마련한 자리였다.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전라북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호남연수원, 전북TP와 공동으로 28일 전주 팔복동에 소재한 '전주 스마트공장 배움터'에서 도내 14개 시·군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스마트 제조혁신 설명회'를 가졌다.

스마트 제조혁신의 큰 축인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은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디지털 경제의 대전환이 이루어지는 시대조류에 부응해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2022년까지 전국 3만 개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디지털 경제에서 기존 아날로그 제조 환경을 스마트화 하는 것은 기업과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필수 요소가 되고 있다. 우리 전북 지역에서는 지난해까지 국비와 도비 지원을 통해 307개의 스마트공장을 구축했으며 올해는 122개 구축을 목표로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설명회에 참여한 공무원들은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의 시·군별

설명회 일정 등을 논의하고 지역업체의 스마트공장 도입 활동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전주 '스마트공장배움터'는 제조혁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올 1월에 개소한 시설이다.

이 곳에서는 스마트공장의 모범적 모델을 구현한 학습용 생산라인을 통해 실제 생산품을 제조하는 등 스마트공장의 구성·운영 체계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또한, 제조혁신과 관련된 각종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우리 지역의 제조분야 미래형 인재 육성을 위한 산실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제조업 경쟁력 향

상과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있다.

안남우 전북중기청장은 "스마트공장 구축은 제조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뿐 아니라 코로나19 이후 언택트 중심의 산업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중요한 열쇠"라며, "해당지역 기업의 성장을 견인할 책무가 있는 관련 공무원자로부터 제조혁신을 위한 스마트화 정책추진에 큰 관심을 가지고 호응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스마트공장배움터의 견학 및 교육에 관심이 있는 경우에는 전주스마트공장배움터(☎063-714-3245)로 연락하면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김윤상 기자

중기 코로나19 극복 지원

식품연, 국내 식품산업 발전지원금 10억5400만원 조성 인건비 2억8500만원 지원 등 고용유지 상생 협약 체결

한국식품연구원(원장 박동준 이하 '식품(연)')과 국내 식품업체 22개사는 28일 식품(연) 대회의실에서 코로나19 공동대응과 연구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기능성식품 개발 및 상용화 등 민간기업 자체 역량으로 해소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해 식품(연)의 인적·물적 인프라를 활용함으로써 식품 중소기업의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해당업체는 식품(연)이 자체 연구개발직접으로 국가 과학기술연구회 이사회의 승인을 통해 마련한 10억5,400만원을 연구비로 지원받는다. 특히 코로나19로 여파에 따른 고용 위기 극복을 위해 고용유지를 위한 연구인력 인건비로 2억8,500

만원을 편성했다.

앞으로 식품(연)은 △기능성식품 시제품 효능 평가 지원 △신제품 개발 △품질·제조공정 개선 △미생물 효능을 비롯한 분석 지원 등 국내 식품산업의 성장을 위해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또한 식품(연)은 연구원 주요사 업으로 약 15억원의 예산을 통해 중소·중견 식품기업 상시기술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식품(연) 박동준 원장은 "코로나19의 여파로 국내 중소기업들이 어려운 환경에 내몰리고 있는 현실의 극복에 힘을 보태고 국내 식품산업의 발전과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추진한 만큼 연구원의 우수한 인적·물적 인프라 등을 결집해 사업 수행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한국식품연구원(원장 박동준 이하 '식품(연)')과 국내 식품업체 22개사는 28일 식품(연) 대회의실에서 코로나19 공동대응과 연구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익산·김제·완주지역 식품산업

코로나 위기극복·일자리 창출 지원

생진원, 고용성장 패키지 추진

전라북도와 전북농산물산업진흥원(원장 김동수, 이하 생진원)은 고용안정 선제대응을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전북 식품산업 고용성장 패키지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에서 전북도는 익산·김제·완주·진안·진원 등 5개 시군을 대상으로 도내 14개 혁신기관과 전북 상용차 산업 고용안정 Safety Belt 구축사업을 기획·수행했으며, 생진원은 농식품산업 혁신고도화를 위한 기업성장지원, 창업지원, 산업간 전직지원, 취업 정착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전북도의 상용차 산업 등 고용위기 산업에서 파생된 인력을 성장산업인 식품산업으로 흡수해 지역고용 안정을 이루겠다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구체적으로 모델형(패키지형) 사업화지원을 통한 기업 성장지원, 창업 활성화 및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농식품 창업지원사업, 위기산업 인력의 고용흡수를 위한 산업간 전직교육 운영, 식품산업 고용유지 및 처우 개선을 위한 취업정착금 지원사업 등으로 운영된다.

생진원 김동수 원장은 "꾸준히 성장해오던 식품산업이 이제는 전라북도 고용안정을 위한 핵심 산업으로서 질적 성장이 필요한 시기이며 이를 위한 전방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본 사업으로 매년 2백여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해, 식품산업의 성장과 고용환경개선을 통한 전직희망 1순위의 산업으로 만들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진흥원 홈페이지(www.jif.kr)에서 확인하면 된다. /김윤상 기자

'국민과 함께하는 농촌봉사활동'

전북농협, 1365자원봉사포털 통한 일반인 봉사자 참여

전북농협(본부장 박성일)은 28일 코로나19 여파로 더해진 영농철 농촌일손부족 해소를 위해 1365자원봉사포털을 통해 지원한 일반인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임실군 관촌면 복숭아 재배 농가를 찾아 농촌일손돕기를 실시했다.

이번 일손돕기는 '국민과 함께하는 농촌봉사활동'이라는 슬로건 아래, 자원봉사자와 전북농협 임직원 10여명이 참여해 복숭아 봉지 채우기 작업을 실시했다.

전북농협은 본격적인 영농철이 시작된 5월부터 범국민 농촌일손돕기 운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이 운동의 일환으로 도내 100여개 기관·기업에게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으로 농촌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는 호소문을 발송하고, 일손돕기를 희망하는 기관·기업과 일손이 필요한 농업인을 중개해주고 있다.



한편 전북농협은 사회공헌 전문가인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와 협력해 1365자원봉사포털을 통해 자원봉사자 참여해 복숭아 봉지 채우기 작업을 실시했다.

한편 전북농협은 사회공헌 전문가인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와 협력해 1365자원봉사포털을 통해 자원봉사자 참여해 복숭아 봉지 채우기 작업을 실시했다.

전북농협은 본격적인 영농철이 시작된 5월부터 범국민 농촌일손돕기 운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이 운동의 일환으로 도내 100여개 기관·기업에게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으로 농촌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는 호소문을 발송하고, 일손돕기를 희망하는 기관·기업과 일손이 필요한 농업인을 중개해주고 있다. /김윤상 기자

경진원-북전주세무소 '찾아가는 세무서' 운영

전북도와 전북도경제통상진흥원(원장 조지훈, 이하 경진원)은 북전주세무소와 함께 지난 28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도내 소상공인과 예비창업자의 종합소득세, 법인세 등 세금 관련 궁금증 및 애로해결을 위해 '찾아가는 세무서'를 운영했다.

이번 행사는 전라북도소상공인희망센터 내 보육업체 40여 명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현장상담소 운영방식으로 진행됐다. 현장상담에서는 각종 세금 관련 궁금증 및 종합소득세 신고 애로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상담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준수를 위해 방문하는 소상공인의 건강상태를 확인 후 일대일 대면 방식으로 진행됐다.

'찾아가는 세무서'에 참석했던 소상공인은 "이번 현장상담소를 통해 그동안 어려웠던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 관련 신고에 대해 궁금증을 해결했다"며 "다만,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각종 세금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 등이 추가되면 좋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에 경진원은 코로나19 피해로 도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 해결을 위해, 세금 안심교실 등 전문상담 운영 및 세무교육 지원을 통해 심각한 경영난에 처해 있는 도내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이다. /김윤상 기자



전북테크노파크노조 온누리상품권 60만원 기부

28일 전북테크노파크노동조합(지부장 신진욱)에서 팔복동주민센터(동장 임명규)에 코로나19로 힘든 취약계층을 위해 온누리상품권 1만원권 60매를 기부했다.

전북테크노파크노조조합은 2017년 4월에 설립된 노동조합으로 직원 급여 및 복지후생을 늘리는 등 기관 위상을 높여나가는 한편, 단체인격을 통해 임금 현실화 추진에 노력하고 있다.

전북테크노파크노조조합 신진욱 지부장은 "요즘 코로나 19로 인해 힘든 취약계층과 지역상권살리기의 일환으로 온누리상품권을 기부하기로 했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취약계층 및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윤상 기자

하림, 흥평·흥크닉 위한 닭가슴살 제품 추천

종합식품 기업 하림이 ㈜하림이 집에서 캠핑이나 피크닉 분위기를 내기 좋은 닭가슴살 제품을 제안했다.

하림 '동물복지 IFP 큐브 닭가슴살'과 '자연실록 동물복지 닭가슴살 큐브 스테이크 갈릭'을 이용하면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캠핑의 대표 메뉴 '닭꼬치'를 집에서도 쉽게 만들어 먹을 수 있다.

'동물복지 IFP 큐브 닭가슴살'은 짧은 열처리 과정을 거친 후 후추와 파슬리로 가볍게 양념했으며, '자연실록 동물복지 닭가슴살 큐브 스테이크 갈릭'은 국내산 마늘의 풍미를 더했다. 한 입 크기의 닭가슴살 큐브를 파, 토마토 등 야채와 함께 꼬치에 꽂아 에어프라이어나 프라이팬에 익히면 먹음직스러운 닭꼬치가 푹푹 완성된다.

좀 더 근사하게 분위기를 내고 싶다면 '자연실록 IFP 치킨 스테이크'를 활용해도 좋다. '자연실록 IFP 치킨 스테이크'는 닭가슴살을 통으로 양념한 제품이다 익히기만 하면 육즙이 풍부하고 식감이 부드러운 닭가슴살 스테이크가 된다. /익산=정영환 기자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 28일 전북은행 본점 19층 연수원에서 6개월 수습기간을 마친 40명의 신입행원들에게 사령장을 수여했다.

‘친취·적극적 사고 기대’ 전은, 신입행원 사령장 수여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은 28일 전북은행 본점 19층 연수원에서 6개월 수습기간을 마친 40명의 신입행원들에게 사령장을 수여했다.

신입행원 40명은 수습기간중 영업점에 실제로 배치돼 한 지점의 일원으로 창구에서 고객 응대를 수행하며 정식행원으로 근무할 준비를 마쳤다.

이날 행사에는 신입행원 40명 외에도 임용택 은행장을 비롯한 선배직원 등 70명이 참석해, 전북은행의 새가족이 된 신입행원들에게 따뜻한 격려의 말을 전했다.

신입행원들은 사령장 수여식에 앞서 전북은행의 일원으로서 고객과 지역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고객의 요구와 선택의 가르침을 귀 기울이는 은행원이 될 것을 다짐했다.

전북은행 임용택 은행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언택트, 비대면, 스마트뱅킹 등으로 많은 변화가 있을 금융환경에 발맞춰 제59기 신입행원의 마음이 집이 아닌 미래를 향한 전북은행 1기의 마음가짐으로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사고를 풀어주길 기대한다"며, "다시 한 번 전북은행의 가족이 되었음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말했다.

농진청 '완주로컬푸드' 무인판매대 운영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28일 코로나19 장기화로 안정적 수요처를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지역농업인을 돕기 위해 전북혁신도시 본청에 농산물 무인판매대를 설치하고 농산물 소비촉진에 나섰다.

지난 15일부터 본청 1층 휴게실에 설치된 '완주로컬푸드' 무인판매대에는 전북 완주군의 로컬푸드 인증을 받은 신선식품과 가공식품이 진열되어 있다. 무인판매대는 비대면 소비 확산에 따라 소비자가 직접 무인단말기(키오스크)에서 물품 선택과 결제를 하도록 운영되고 있다.

농촌진흥청과 전북 완주군, 완주로컬푸드협동조합이 협업해 추진한 무인판매대는 2021년 5월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이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농가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농산물 팔아주기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3월에는 대구 팔공산 미나리와 미나리즙 팔아주기 운동을 펼친데 이어 4월에는 학교 급식용 친환경농산물 공동구매 캠페인을 추진해 총 5,800여만 원의 농산물을 구매했다. 또한 2월부터 매달 '화훼농가 꽃 시주기 운동'을 통해 화훼농가 돕기에도 관심을 쏟고 있다.

농촌진흥청 코로나19대응 영농기술지원반 노형일 반장은 "우리 농산물 소비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농어촌공 전북본부, 재해대비 기전시설물 점검

한국농어촌공사 전북본부(본부장 이강환)는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과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비상상황 발생시 신속한 배수장 가동을 위해 지난 19일부터 26일까지 도내 농업기반시설물 기계·전기시설 사전점검을 실시했다.

도내 농업기반시설물(수원공)은 2,003개소로 주요현황을 보면 양수장 597개소, 배수장 68개소, 양·배수장 13개소, 대형관정 257개소 등을 관리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본부 및 각 지사 전문

가로 구성된 점검반을 편성해 집중호우 및 태풍 등 이상기후로 인한 비상상황 발생시 시설물의 정상가동과 위기관리 대처능력 제고 및 직원 안전관리교육 등을 점검해 잠재적 위험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실시했다.

이강환 본부장은 "기전시설물의 효율적 유지관리로 적시·적기에 양·배수장이 가동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조치를 해, 농업인들의 안전영농과 재해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김윤상 기자

구독·공고문의
063-288-9700